

2008. 12. 15 제205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도쿄都의 자전거 전용도로

문화·디자인

1. 주제 따라 걷는 도보여행 (런던)
2. 문화 관련 신규 일자리 300여 개 조성 (베를린)
3.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기념일을 담은 '다문화 캘린더' (베를린)
4. 진귀한 문화재 공개 행사 개최 (도쿄)
5. 황푸강 다리 사이에 유람선 연결 (상하이)

산업·경제

6. 공정거래 무역 활성화에 자치구와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 (런던)
7. 난징루 상업지역에 서비스 표준화 시행 (상하이)

건강·복지

8. 스포츠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독려 (베를린)
9. 참전 군인은 모든 교통수단 무료로 이용 (런던)

목 차

행정·재정

10.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한 목소리로 6대 현안과제 천명 (런던)

도시환경

11. 자동차 공유 서비스 ‘Zip카’(ZipCar) (미국)
12. 축제와 행사도 친환경적으로 (텍사스주 오스틴市)
13. 빗물 재활용 시스템 갖춘 유기농 시장 개장 (브라질 쿠리치바市)

도시교통

14. 도보 개선사업 현황을 실시간 지도 서비스로 홍보 (런던)

도시계획·주택

15. 지금 살고 있는 집의 1940년대 모습을 사진으로 판매 (뉴욕)
16. 신축 주거 건물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확보 (뉴욕)
17. 친환경 도시(Eco-City) 건설 프로젝트 추진 (상하이)

[벤치마킹 사례]

도쿄都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요 내용>

○ 도쿄都는 경시청 및 국토교통성과 연대해 게이요 도로(국도 14호선)·고토구가메이도 지구와 구타마가와스이도 도로·시부야하타가야 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2008년 3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음.

- 고토구가메이도 지구의 경우 약 400m, 시부야하타가야 지구는 약 1.2km를 인도가 아닌 일반 도로를 축소해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도로 다이어트’ 개념과 유사함.



(출처: www.sjc.gr.jp/bicycletransit)

도로 일부를 축소해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도쿄都 게이요 도로·고토구가메이도 지구)

- 도쿄의 자전거 수는 2004년 현재 818만 대로 일본 전체의 1/8에 달하며, 통근·통학 목적 수송분담률은 8%를 차지하는 등 시민의 중요한 발 역할을 하고 있음.
 - 통근·통학 목적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철도·전철의 수송분담률(67%)의 뒤를 잇고 있으며,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인 6%보다 높음.
 - 자전거만을 이용해 통근·통학하는 비율은 28% 정도이나, 대중교통과 연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77%로 매우 높음.

<해설 및 평가>

- 최근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의 통행노선을 분리해 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 도쿄都 자전거 전용도로의 목적임.
- 도쿄都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4년 현재 2만 8000여 건이며,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비율이 2000년 15.2%에서 2004년 16.8%로 증가하고 있음.
 - 자전거가 제1당사자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000여 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55명 정도임.
 - 자전거 사고의 약 60%는 교통법규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됨.
- 도민 대상 조사 결과,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와 ‘보도와 차도 분리’가 우선순위를 차지함. 즉, 자전거 운행의 안전성 및 운전의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반영하는 것임.
 - 아직 도쿄都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행결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 이르나, 스기나미쿠에서 실시한 ‘자전거 도로 사회 실험’(2008년 1월 28일~2월 6일)에서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개선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77.4%, 81.5%에 달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자전거 수송분담률과 복합수송 기능 미흡
- 서울시 자전거의 통근·통학 수송분담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서울시의 통근 목적 자전거 통행인구는 1990년 1%에서 2000년 0.66%로 감소했고, 자전거 통학인구도 2000년 0.70%에 그침.
 - 2005년 현재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은 2.4%로, 도쿄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복합수단으로서의 통행 기능도 미약함.
 - 자전거와 전철의 연계통행은 통근인구의 0.02%, 통학인구의 0.01%에 불과한 실정임.

○ 분리형 간선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 기존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므로 보행자와의 충돌 및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 2006년 현재 교통사고 중 자전거가 교통사고의 제1당사자인 비율은 0.7%이나 사망자의 비율은 2.4%임.
 -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길에서 보도 및 차도(이면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7.5%, 18.3%이어서 보행자 및 자동차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음.
-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주로 강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음.
 - 자전거가 주로 레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나 쇼핑 등 생활형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함을 말하는 것임.

<벤치마킹 시행방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생활형으로서의 기능 강화

-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2012년까지 주요 간선도로 17개 축에 207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할 계획임.
 - 계획시행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공임대시스템 등을 정비해, 시나 구역 차원의 자전거 도로 위계망을 구축해야 함.
 - 체계화돼 있지 않은 자전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충해, 복합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위상을 높이고, 생활 중심의 특화지역을 운영해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도로와 보도 분리 필요

- 도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가 주요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 보도 및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시설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감소 및 자전거 이용 촉진에 기여

-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은 자전거의 편이성을 높여 자전거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통행수단 기능 담당 및 고효율·저비용 구조에 기여

- 간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은 통근·통학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을 강화해 자가용 이용 억제에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주요 통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환경 및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을 낮춤으로써 서울시의 고투입·저효율 구조를 저투입·고효율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안기정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akjakj@sdi.re.kr)

1. 주제 따라 걷는 도보여행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걷기여행 정보를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함.

- ‘영화 속의 런던’, ‘동부 런던의 범죄 사건을 따라’, ‘전설의 고향’, ‘런던의 건축’, ‘역사 속의 런던’ 등 5개 주제에 따라, 하루 동안 걸어서 탐방할 수 있는 여행 경로와 정보를 제공함.

· ‘영화 속의 런던’ 경로를 선택하면 007 시리즈, 해리포터 등 유명 영화의 배경 장소를 방문하며 영화 즐거움을 즐길 수 있음.

· ‘런던의 건축’ 경로를 따라 걷다보면, 런던 대화재 이후 다시 건축된 유명 건물이나 건축사적으로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 근대 건축물을 런던의 도시 발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음.

- 문화와 교통수단을 연결한 도보여행 정보제공 서비스는, 유명한 유적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도시 모습을 문화상품으로 재창출할 수 있음.

· 지점과 지점을 도보로 연결하는 여행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www.tfl.gov.uk/tfl/gettingaround/maps/themedjourneys/default.asp)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과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도시들은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 유명 관광지에서 나아가, 한 차원 높은 일상생활의 장소로, 또 감춰져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심의 골목으로 확대하고 있음.

· 지난 세기의 유럽 도시문화 정책가들은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역사적이며 규모가 있고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음.

- 그러나 최근 유럽도시의 문화 정책가들은 21세기의 세계인이 도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좀더 가깝고, 섬세하며, 느낌이 있으며,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12개의 문화유적 코스와 문화예술 체험코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정례화되고 일반화되어 시민과 외국 관광객이 빨리 식상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사랑받고, 다양한 기호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호기심과 즐거움, 새로운 발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항상 문화와 생동감이 흐르는 골목을 보전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2. 문화 관련 신규 일자리 300여 개 조성 (베를린)

- 베를린시는 ‘문화 일자리 혁신’(Berliner Initiative Kulturarbeit) 프로젝트를 통해 3년 기한의 문화 관련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
- 베를린시 전역의 문화 관련 동호회나 문화 프로젝트를 후원할 계획임.
 -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베를린 문화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자리 조성과 관련해 향후 3년 간 2000만 유로(약 36억 원)를 문화 분야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함.
- 지난 5개월 동안 자격을 갖춘 문화 프로젝트와 관련 일자리 지원자 수로 볼 때, 이러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입증됨.
 - 지원자는 2년 이상 실업상태이며, 1년 이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야 함.
 - 주로 문화경영, 기술조언, 문화행사 조직의 대외업무, 예술과 문화매개 업무 등의 일자리 수요가 많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1/12/114039/index.html)

3.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기념일을 담은 ‘다문화 캘린더’ (베를린)

○ 베를린市 통합·이민부는 다양한 전통과 종교를 가진 이주민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다문화 캘린더’(Interkulturelle Kalender)를 발행해 오고 있음.

- 2009년도 캘린더에는 각 종교마다 중요한 날, 세계적인 축제일·기념일·국경일 등을 포괄적으로 수록해 색깔별로 표시함.

· A3 크기의 포스터로 제작해 2만 부를 발행했으며, 통합·이민부 사무실에 서 한 부당 50센트(900원)에 구입할 수 있음.

-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베를린市는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베를린市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현대 대도시를 위한 매력적인 요소로 수용하고자 함.

(www.berlin.de/lb/intmig/publikationen/kalender/index.html)

4. 진귀한 문화재 공개 행사 개최 (도쿄)

○ 도쿄都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국가 및 都 지정 문화재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도내 문화재 432점을 일제히 공개하는 ‘도쿄 문화재 주간’을 개최함.

- 도민이 문화재를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 도쿄都 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11번째임.

- 문화재 주간에는 평소에 잘 공개하지 않는 문화재를 공개하기도 함.

·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던 종교시설의 내부를 특별히 공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해 문화재 투어를 실시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9/20i9i100.htm)

5. 황푸강 다리 사이에 유람선 연결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10년까지 황푸강에 다리와 유람선이 연결되는 개폐식 다리를 놓아 운치를 더할 전망이다.
- 이 다리는 황푸강 양쪽 강기슭에 회전축을 만들어 2개의 다리가 정박해 있다가, 강 표면을 따라 결합할 때 엑스포 1호 유람선이 두 다리 가운데에 놓여 다리가 완성되는 형식임.
 - 엑스포 1호 유람선은 길이 76m, 너비 26m, 높이 4층으로 800명을 수용할 수 있음.
- 1시간에 7000명이 도보로 다리를 건너면서 황푸강 경치를 관람할 수 있게 설계된 이 다리는 선박과 다리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수상 전시관이 될 전망이다.

(www.chla.com.cn/html/2008-10/20452.html)

산업 · 경제

6. 공정무역 활성화에 자치구와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 (런던)

- 런던市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소비하자는 목적을 가진 공정무역을 홍보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최근 '페어 트레이드 런던' 홈페이지(www.fairtradelondon.org.uk)를 열고 공정무역 상품의 취지와 중요성, 공정무역 인증 표시 등을 소개함.
- 공정무역 상표가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공정무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공정무역 관련 행사를 자치구 별로 정리해 소개함.
 - 기업체의 참여도 활발해 현재까지 100여 개 업체가 공정무역 캠페인에 참

여하고 있음.

- 20여 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동하고 있음. 캠든區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캠든 공정무역 네트워크 메뉴를 신설해 구역 내 공정무역 상품을 파는 소매상 및 관련 기업 정보를 적극 소개하고 있음.

- 런던市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발판으로 런던市가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 도시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런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정무역 캠페인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함.

(www.fairtradelondon.org.uk/index.asp)

(www.camden.gov.uk/ccm/content/community-and-living/your-local-community/camden-fairtrade-network.en)

>>> 전문가 검토의견

- 공정무역은 사회적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임. 런던市와 자치구의 공정무역 지원사업은 런던市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윤리적 소비 차원에서 공정무역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공정무역은 제3세계 경제 지원에 가장 효과적임. 공정거래 무역사업 및 윤리적 소비가 활발한 도시의 경우,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임.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노동을 제한하고 친환경 및 전통적 생산방식으로 생산되는 제3세계의 커피, 카카오, 설탕, 올리브 오일, 의류, 축구공, 카펫 등을 수입·판매하는 공정무역이 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 YMCA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정무역 사업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음.
- 서울은 공정무역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 제3세계 국가의 경제 지원,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이미지 제고, 사회적 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와 자치구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7. 난징루 상업지역에 서비스 표준화 시행 (상하이)

- 상하이市는 난징루 지역을 ‘서비스 표준화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2010년까지 전문매장, 음식점, 호텔 등 상업지역의 90% 이상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서비스 표준화 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점, 전문매장, 빌딩 내 고객 휴식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 영업장 내 출입구와 안내데스크가 표시된 전체 안내지도나 전자지도 등이 있어야 함.
 - 식당의 음식물쓰레기 분류 및 회수, 식기 청결화 등에 관한 규제도 포함함.

- 상하이市는 난징루 상업지역의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고객만족율은 90% 이상 달성하고 소비자 고발율은 매년 10% 감소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06872.html)

건강 · 복지

8. 스포츠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독려 (베를린)

- 2008년 11월 14일 베를린 시청에서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인포센터’의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림. 독일에서 유일하게 베를린市에만 있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센터임.

- 개최축사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인포센터가 장애인에게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공공의 인식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함.
- 장애인 스포츠인과 스포츠에 관심 있는 일반 장애인에게 중앙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이곳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는 다양한 스포츠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 왔음.
-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인포센터는 베를린 시의회, 베를린 자유대학, 독일 올림픽위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1/14/114276/index.html)

(www.info-behindertensport.de)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시의 장애인 스포츠 인포센터는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의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장애인 스포츠 인포센터가 20년간 입지를 굳히며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1956년 이후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가 법적인 보장(재활체육 참여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부 및 관련단체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스포츠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고려해야 함.
- 서울시 대부분의 장애인은 중도 장애인이므로 장애 발생을 진단한 의료기관이나 장애 등록장소를 통한 발굴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장애 발생 초기부터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구하고, 아직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장애

인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eyn@sdi.re.kr)

9. 참전 군인은 모든 교통수단 무료로 이용 (런던)

○ 런던시에 거주하는 참전 군인은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됨.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영웅적 활동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자 교통시설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전쟁연금’(War Pensions Scheme)과 ‘전쟁 보상 대상자’(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에 속한 모든 참전 군인이 이 혜택을 받게 됨.

· 참전 군인뿐 아니라 참전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

- 런던시는 ‘참전 군인 무료 여행안’(Veterans Concessionary Travel Scheme)도 기획 중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457)

행정 · 재정

10.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한 목소리로 6대 현안과제 천명 (런던)

○ 영국정부와 런던 내 자치구 대표들은 ‘런던 해법’(London Narratives)이라는 이름 아래 6대 현안을 선정해 발표함. 런던시뿐 아니라 자치구와 중앙정부가 런던시의 현안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색적임.

- 이번에 발표된 현안과제는 2008년 4월 체결한 영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3개년 협약인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s)을 구체화한 집행계획임.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이 점차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6대 현안과제에는 보건, 범죄, 환경, 경제 성장, 어린이 빈곤문제, 교육, 지역사회 단결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정함.
 - 목표에는 절도·강도 범죄 발생을 7% 감소,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10대 청소년 비율 6.4%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0% 감축 등임.
- 향후 3년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협정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관, 중앙정부 부서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임.

(nds.coi.gov.uk/Content/Detail.asp?ReleaseID=382475&NewsAreaID=2)

도 시 환 경

11. 자동차 공유 서비스 ‘집카’(ZipCar) (미국)

- 미국에는 ‘집카’(ZipCar)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성행 중임.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다면 자동차를 여럿이 공유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임.
 - 집카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거주지 근처 편리한 장소에 배치된 자동차를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있음.
 -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예약해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직접 사용할 차를 가지러 감. 사용 후에는 정해진 위치에 다시 주차하듯이 반환하면 다음 이용자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 대여 및 공유 시스템임.
 - 집카는 친환경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깔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슈로 볼 수 있음.
 - 25만 명 정도의 집카 이용 고객의 상당수가 자동차 소유를 포기하면 약

10만 대의 차량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낭비를 막을 수 있음.

(www.inhabitat.com/2008/11/13/is-it-green-zipcar/#more-15973)

12. 축제와 행사도 친환경적으로 (텍사스주 오스틴市)

○ 텍사스주 오스틴市는 축제와 행사 개최 시 쓰레기양을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규모 행사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물병 배포 및 판매를 금지함.
- 행사 주최 측은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 제품을 재활용해야 함. 재활용 쓰레기통을 항상 일반 쓰레기통 옆에 두어야 함.
-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셔틀버스의 운행 스케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함.

- 2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 市 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행사, 市의 지원을 받는 행사, 도로를 폐쇄하고 진행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적용됨.

- 市는 축제 및 행사에 그린스타 등급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행사 주최 측이 새 정책에 쉽게 순응해 친환경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임.

(www.planetizen.com/node/36062)

한 줄 뉴스

● 필라델피아

- 이민 가정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학습을 보조·지원하기 위해 학습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 베를린

- 친가족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가족 정책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대화' 행사 실시

13. 빗물 재활용 시스템 갖춘 유기농 시장 개장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브라질 최초로 3700m²의 유기농 상품 판매시장을 2009년 1월에 개장하기로 함.

- 유기농 시장은 기존 채래시장 옆에 열어 시민이 시장 두 곳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1층에는 축산품, 식당, 간식당, 수공예품·의류·화장품 상점, 농약 무첨가 인증을 받은 식료품만 판매하는 상점이 입주함.
 - 2층에는 상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교육 센터가 들어섬.
-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붕에 설치한 빗물 재활용 시스템으로, 빗물을 받아 화장실이나 청소용에 사용함.
 - 유기농 시장 내부는 자연광을 이용하도록 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4722)

도 시 교 통

14. 도보 개선사업 현황을 실시간 지도 서비스로 홍보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보 개선사업 현황과 작업진행 상황을 실시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인도와 도보의 확보, 신호 개선사업의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지도와 제공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함.
 - 우편번호나 지역명을 검색하거나, 지도 위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지역명과 주요 지점에 대한 설명이 나타남.
-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하철과 모노레일이 함께 운영되는 런던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깊이만큼이나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이 자주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과거의 좁은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빅토리아 시대의 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극심한 도로교통 정체와 버스노선 우회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 소매업 매출이 떨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함.
- 차량 위주의 도로 시설 개선사업뿐 아니라 도보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www.tfl.gov.uk/tfl/corporate/projectsandschemes/roadsandpublicspaces/walkImprovements/default.asp)

>>> 전문가 검토의견

-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런던은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보행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음.
 - 보행은 다른 교통수단과 다르게 수단 자체에 대한 정보보다는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런던市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행길 홍보사업은 보행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런던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만큼 전통이 깊은 도시이고, 특히 도심 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명소 및 관광지가 있음.

- 지역명소 및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행지도를 보행자의 눈에 맞춰 제작할 필요가 있음.

/이신해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도시계획·주택

15. 지금 살고 있는 집의 1940년대 모습을 사진으로 판매 (뉴욕)

○ 뉴욕市는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의 뉴욕시 5개 지구의 모든 주택을 사진기록으로 남겨 두었음. 市는 2008년 10월부터 이 사진의 출력본과 컴퓨터 이미지를 지역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 뉴욕市는 1930년대부터 부동산 세금부과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관내의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사진기록을 남겨 왔음.
 - 특히 1939년부터 1941년까지는 관내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진촬영이 진행돼, 현재 72만 건의 흑백 및 컬러 사진을 보관 중임.
 - 원본 필름과 현상본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기금 보조로 새로 복원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돼 있음.
- 시민이 자신이 찾는 옛 집이나 특정 건물을 열람하고 싶으면, 시 문서보관소나 홈페이지(www.nyc.gov/dorforms/photoform.jsp)에 접속하면 됨.
 - 주소를 몰라도 옛 관내지도를 통해 찾을 수 있음.
- 건물 당 사진은 한 장만 촬영됐으며, 주문부터 배송까지는 약 4~6주가 소요됨.
 - 사진은 개인 소장용으로만 가능하고,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www.nyc.gov/html/records/html/taxphotos/home.shtml#order)

한 줄 뉴스

● 브라질

- 플로리아노폴리스市, 25개 초등학교 교장과 39개 유치원 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살바도르市, 22개 장소에 택시 운전자 전용 화장실 설치

16. 신축 주거 건물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확보 (뉴욕)

○ 뉴욕市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해 온 자전거 이용 장려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 주차장 법률안’을 제안함.

- 법률안에 따르면, 신축 주거 건물의 경우 두 가구 당 최소 하나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오피스 빌딩의 경우 약 68㎡마다 하나 이상의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함.
- ‘미국 자전거 이용자 연맹’(The League of American Bicyclists)과 ‘대체 교통수단 연맹’(the League of Transportation Alternatives)은 기상 변화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고 잠금장치가 있는 자전거 주차시설을 최소 10가구 이상의 주거·상업·업무용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존의 LEED 인증제도(LEED: The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친환경적인 건축물 등급제도)를 통해서도 자전거 관리시설 마련을 장려할 수 있음.
 - 건물주는 최소한의 자전거 보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LEED 인증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 비용 측면만 보더라도, 자전거 보관 시설은 설치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자동차 주차시설에 비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음.
- 디자인에 따라 자전거 보관 시설은 도시 경관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등 장점이 있음.

(www.treehugger.com/files/2008/11/new-york-city-may-implement-tough-

17. 친환경 도시(Eco-City) 건설 프로젝트 추진 (상하이)

- 상하이市 근교 동탄(東灘) 지역은 현재 대부분 농경지이지만, 친환경 도시(Eco-City)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40년 후 생태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임.
 - 동탄 지역을 습지공원(24km²), 생태농장(27km²), 생태도시(35km²)로 구성함.
 - 6.3km²의 1기 공정이 완료되는 2010년이 되면, 대부분 5~8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며 주거·쇼핑의 복합도시가 될 것임.
 - 복합생태시스템을 기초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고, 폐기물의 80%를 재활용하며, 특히 쌀겨를 활용한 바이오연료는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함.
 - 소음·배기가스 공해 주범인 오토바이 이용은 전면 금지되고, 자전거·클린 에너지 버스·수상택시가 주요 교통수단임.
 - 환경보호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건물을 건축함. 지붕에 잔디와 녹색식물을 심어 천연방열층 역할을 하게 하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도 갖출 예정임.
- (www.ce.cn/cysc/newmain/list/ny/200811/21/t20081121_17453911.shtml)

한 줄 뉴스

● 런던

- 도심 외곽 활성화를 위해 '도심 외곽 런던위원회'를 설치하고, 런던 외곽의 5개 성장 허브를 지정해 타운센터 건설 예정

● 요코하마

- 시장과 카레라이스를 먹으며 요코하마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는 '카레 런치 미팅' 매달 1회 실시